

전북도 '탄소산업 육성' 5년 로드맵...효성, 생산라인 증설 속도

탄소소재법 개정안 3년여만에 국회 통과...탄소융합산업 종합계획 연내 수립
글로벌 경쟁력·미래 성장산업 이끌 컨트롤 타워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탄력

전북 최대 현안인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3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가 탄소융합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체질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전주에 탄소섬유공장이 있는 효성도 생산라인 증설에 속도를 낸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4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 100년 먹거리인 탄소융합산업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전북도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탄소소재 융합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적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탄소산업진흥원과 더불어 효성의 대규모 증설 투자 이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고 '소재생산

-중간재-부품(복합재)-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 산업 생태계의 완성을 통해 탄소융합산업의 체질을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탄소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해 5년간 진행할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전북도는 국산 탄소섬유의 적용분야를 확장하고 다양한 응용제품에 대한 실증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탄소융합 규제자유 특구 지정(2020년 6월~2024년 5월, 2+2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융합 소재를 활용한 응용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이 실증되면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다양한 응용제품의 출시와 활성화로 탄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예상된다.
아울러 탄소 소재 관련 전문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아 육성할 방침이다.
당초 상임위 단계의 탄소 소재법 개정안은 '한국

탄소산업진흥원을 둔다'라고 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진흥원을 기존 탄소 소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란 조항이 추가됐다.
전북도는 개정안 통과로 기술원의 진흥원 지정이 탄력받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 소재 융합기술 정책과 제도 연구, 시장 창출, 제품 표준화, 창업·연구개발 지원 등 탄소산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지원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개정안 통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란 국가 차원의 탄소 산업 컨트롤 타워가 생기게 됐다"며 "탄소 산업이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는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인정받았다"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앞으로 혁신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 산업의 메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효성은 2013년부터 전주에 연산 2000t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탄소섬유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해 연산 2만4000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4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래 100년 먹거리인 탄소융합산업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지난 1일 정읍시와 전북도, 엑스티지(주)는 정읍철도산업농공단지에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읍시 제공>

정읍 철도산업 중심지 급부상...전동차 부품 생산 200억 투자

엑스티지 철도산단에 투자협약
10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정읍시가 철도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5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엑스티지(주), 전북도와 정읍철도산업농공단에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하동기 엑스티지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엑스티지는 입암면 철도산업농공단지 내 2만5851㎡(약 7820평) 부지에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를 약속한 엑스티지는 국내 전동차(지하철, 전철) 생산의 3대 축의 하나인 다원시스의 협력업체로, 부산시 기장군 명례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이다.
전동차 대차 프레임과 실내 내장판, 화장실 모듈, 도어 등을 생산하며 이번에 다원시스 자회사인

다원넥스트와 1차분 200억원의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른 본격적인 부품 생산시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한 후 11월중 완공 및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투자를 결정해준 엑스티지에 12만 정읍시민의 마음을 모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며 "투자기업들이 정읍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문화관광재단,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공모사업 선정 주민 주도 콘텐츠 발굴 관광수요 창출 문화사업 편다

고창군은 고창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운영 사업(문화체육관광부), 농촌 유희시설 활용사업(농림축산식품부) 선정에 이은 3번째 국비 공모사업 선정이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 등의 중간단위 조직으로 기초지역 단위에서 관광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주민 주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사업을 연계해서 지역의 관광수요를 창출을 목표로 한다.
고창군과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역내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적인프라 통합구축을 통해 연계협력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관광경영조직, 일명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를 구성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특히 고창 전역에 분산되어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 품질개선, 관광 BM 발굴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작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발굴로 지역관광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향후 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살아보니 남원만 한 곳 없더라"
18일까지 '생활행복수기' 공모
남원시가 오는 18일까지 '남원 생활 행복 수기'를 공모한다.
주제는 가족의 소중한 가치와 남원 정착 사례 등 2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결혼·임산·출생·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기쁨과 보람,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행복한 가족문화, 공동체 이야기와 일자리, 귀농·귀촌, 은퇴, 자연환경 등을 이유로 남원으로 이주 준비부터 실생·정착까지 전 과정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다.
올해 4월24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면